

地理·種族·젠더의 시대적 의미

—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 시대 이민족 文化

이영숙*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이국 물자의 유통과 시장의 국제화
3. 언어 장벽의 와해와 세계관의 확장
4. 남녀관의 변화와 젠더 질서의 재편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중국은 광대한 지역적 요건으로 인해 漢族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존재해 왔으며, 이민족에 대한 정책은 지배 왕조의 혈통 및 이데올로기, 민족 대응합의 필연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의 궤적을 걸어왔다. 사서에서 따로 이민족에 관한 부분을 할애했듯, 그 정도나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사에서 이민족이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3세기 초, 400년 역사의 漢이 멸망하고 6세기 말에 隋가 다시 전 중국을 통일하기까지의 분열기인 魏晉南北朝 시대는 가히 이민족의 각축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민족이 중원의 정치 및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중 匈奴·鮮卑·羌·氐·羯의 五胡는 중원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점거해 왔는데, 西晉 초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그 수가 백만을 넘길 정도였다. 漢末-曹魏-서진으로 이어지는

*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중원의 정치적 변혁기는 華北의 오호가 잇달아 정권을 수립하여 서로 흥망을 되풀이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민족의 영향력은 전에 없이 확장되어 중원의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북방 종족들의 끊임없는 南遷과 국경 분쟁, 잦은 전투로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이미 국경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한족으로서는 탄탄한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오는 이민족들을 멸시와 무시, 무력과 억압 등의 강경책으로만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흉노족이 거대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한 漢代 이후에는 강경과 화친을 번갈아 시행하는 탄력적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전투력으로 중원을 위협하는 선비와는 대적점을 이루었지만, 선비족에 대해 병풍의 역할을 했던 흉노에 대해서는 통혼 및 물자 교류 등의 화친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¹⁾

이러한 과정에서 종족 간 문명의 접촉과 풍속의 노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종족 간의 교류는 사신 파견, 물자 교환, 통혼 등의 공식적 루트 이외에도 국경 부근 恆州·代郡 지방 거주민들과의 비공식적 교류 및 잡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상호 문명의 접촉으로 지리·종족·문화의 경계는 전에 없이 느슨해졌으며, 이는 중원 문화권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했다. 즉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문명의 수용과 융합으로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다양화가 위진 시대의 玄學·美學·淸談 등의 예술·사상적 발전과 물질적·문명적 풍요를 견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진남북조 시기 이러한 종족 간 문명과 문화의 교류와 융합의 독특한 흔적을 투영하는 최적의 텍스트로서 『世說新語』의 가치가 높다고 여겨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는 『세설신어』가 시기적으로 東漢 말부터 東晉 말까지 약 200년간 797조에 달하는 사대부 문인과 학자를 비롯하여 고관귀족, 승려, 부녀자, 하녀, 이민족 등 700여 명에 이르는 다양한 실존 인물들의 언행과 일화를 수록한 지인소설로 위진인들의 풍속·언어·습관·풍모·생활양식 등을 생생하게 보

1) 사와다 이사오 지음; 김숙경 옮김, 『흉노』, 아이필드, 2007, 27-35쪽 참조.

여출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세설신어』는 知人·識人을 위한 德行·方正·雅量 등 인물의 내적 가치뿐만 아니라, 容止·簡傲·排調·假譎·汰侈 등 외모와 성격·가치관 및 심미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인물을 품평하는 과정에서 옷차림, 악기, 용어, 음식, 교통수단, 용품, 오락 등 일상생활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세심한 묘사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세설신어』는 사서 등의 공식 문헌에 비해 자유롭고 독특하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로 한족-이민족 간의 문화적 융합 및 다양화의 현상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세설신어』의 다양한 일화 중 이민족과 관련된 고사들을 발췌하여 衣食住와 관련된 생활적 측면, 언어 및 종족관념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 男女觀 및 젠더 질서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민족과 관련된 물자와 용어, 관념들이 전파되고 성행되는 과정과 현상들을 추적하고 이해함으로써 위진남북조 시기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시대적 의의를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이국 물자의 유통과 시장의 국제화

잡은 이동과 전투, 수렵과 유목이 생존 수단인 유목민의 생활 방식은 농경 위주의 정착 생활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충효의 윤리를 가치 규범으로 삼는 한족과는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었다. 판이한 삶의 방식은 의복, 주거, 음식, 교통수단 등 생활 방식 및 도구·재료의 다양한 차이를 초래했다.

『史記·漢書』·『後漢書』 및 『三國志』의 「魏書」·「晉書」 등 이민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들의 삶을 재구성해 보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 전투와 생존, 수렵과 목축, 이동과 적응이 삶의 방식인 유목 생활은 간결함과 소박함, 실용과 속도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복잡한 절차나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도구나 의복, 장신구는 최대한 절제하였고, 음식 또한 조리과정이 짧고 영양이 풍부한 식생활을 선호하였다. 주거 형태는 조립·설치·철거가 용이한 窮廬라

는 천막을 이용했고, 상용하는 가구나 도구 역시 이동에 최적화된 물품 위주였다. 『한서』의 다음 기록을 보자.

胡人들은 입고 먹는 일이, 땅에 고착된 것이 아니어서, 그 형세는 쉽게 변경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호인들은 고기와 유즙을 먹고, 가죽과 털을 입으며 성곽이나 전택 등의 주거지가 없습니다.²⁾

한 文帝 11년(BC169) 晁錯이 변경의 대책을 보고하며 이민족의 특성을 언급한 한 위의 기록을 통해 이민족의 습속, 문화, 풍습, 의식주에 관한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생태 환경과 정치 형세에 따라 이주하는 이민족들은 성곽이나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으며, 음식과 의복도 목축을 통해 얻는 등 의식주 전반이 정착 생활을 하는 중원의 한족과 크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한말 이래로 계속되는 북방 異族의 남하로 각 종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진에 이르러 關中の 馮翊·北地·新平·安定에는 羌族이, 扶風·始平·京兆지역에는 氐族이 다수 분포하여 '관중 인구 백여만 중 戎狄이 半'³⁾이라 할 정도로 상당수의 북방 이민족과 한족이 뒤섞여 잡거하면서 주거 형태에도 다소 변화가 초래되었다. 남하하여 귀속한 이민족들은 일정한 부락을 이루었으며 都尉리는 한족 관료가 다스리되 고유한 정치질서와 종족의 습속은 유지토록 했다.⁴⁾ 따라서 지근에서 잡거하며 종족 간 문물의 교류와 사용이 가능했던 당시, 이민족은 한족의 문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으며 이민족의 이국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문명 역시 자연스럽게 중원의 문화에 유입되어 점차 위진 문화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2) 『漢書』 卷49 「爰盎鼂錯傳」 第19: 「晁錯上言守邊備塞曰: 「胡人衣食之業不著於地, 其勢易以擾亂邊境. 何以明之? 胡人食肉飲酪衣皮毛, 非有城郭田宅之歸居。」(北京, 中華書局, 1983年, 2284쪽.)

3) 『晉書』 卷56 「江統傳」: 「當今之宜, 宜及兵威方盛, 眾事未罷, 徙馮翊、北地、新平、安定界內諸羌, 著先零、罕並、析支之地; 徙扶風、始平、京兆之氐, 出還隴右, 著陰平、武都之界……且關中之人百餘萬口, 率其少多, 戎狄居半關中之人百餘萬口, 率其少多, 戎狄居半。」(唐·房玄齡, 『晉書』 卷56 「江統傳」, 北京, 中華書局, 1998年, 1531-1532쪽.)

4) 홍승현, 「魏晉南北朝時期 中國의 世界 개념 변화와 이민족 정책」 『동북아역사논총』(10), 2006.4, 233쪽 참조.

수렵과 목축이 생계 수단인 이민족의 의복은 간소함과 실용성이 주목적이었으며 재료 역시 동물의 가죽이나 털 위주였는데, 이는 광활하고 추운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과 추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⁵⁾ 변방에 파견된 위진의 장수들은 북방의 털옷과 가죽옷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신분에 따라 주로 면이나 비단을 재료로 삼거나, 숨을 넣은 겂옷으로 겨울을 나던 한족에게 가죽으로 만든 신발, 장신구, 겂옷은 추위를 막는 실용적 품목인 동시에 사치스럽고 값비싼 품목이었다. 『세설신어』 「言語44」를 보자.

孔廷尉(孔坦)가 가죽옷을 사춘 동생인 孔沈에게 주었는데, 공침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정위가 말하길: “晏平仲(晏嬰)은 검소하여 자기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에도 돼지다리 고기가 祭器에 차지 않았지만, 여우 가죽옷은 수십 년 동안이나 입었네. 자네는 어찌 이것을 사양하는가?”라고 하자, 그제야 공침이 받아서 입었다. (孔廷尉以裘與從弟沈, 沈辭不受. 廷尉曰: 「晏平仲之儉, 祠其先人, 豚肩不掩豆, 猶狐裘數十年. 卿復何辭此?」 於是受而服之.)

공정거가 선물한 가죽옷을 사춘동생 공침이 사양하자, 춘추시대 齊의 대부 안영이 검약하지만 여우 가죽 옷 한 벌만은 갖추되 30년 간 착용한 것을 예로 들어 가죽 옷을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다. 겂옷(裘)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만든 옷이다. 진귀한 짐승의 가죽일수록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값비싸고 귀한 의복으로 취급되었다. 『예기』 「단궁상」에 따르면 國君은 겂옷 7벌에 수레 7대, 대부는 겂옷 5벌에 수레 5대가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⁶⁾ 즉 전국시대만 해도 국군과 대부 정도 되어야 공식적으로 정해진 수만큼만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가죽옷은 진귀하고 비싼 품목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수레와 비견될 정도이니 그 가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위 일화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가죽

5) 물론 동물 가죽이나 털 및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복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귀족층을 중심으로 많은 비단옷이 사용되기도 했다. 몽골 초원지역에서 모직물의 의류와 함께 발굴된 비단 자수로 된 겂옷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6) 『禮記』 「檀弓上」: 「晏子一狐裘三十年, 遣車一乘, 及墓而反; 國君七個, 遣車七乘; 大夫五個, 遣車五乘, 晏子焉知禮?」(〔元〕陳澧, 『禮記集解』, 北京, 中國書店, 1994. 6. 228쪽.)

옷은 여전히 희소한 가치를 지닌 귀한 의복이긴 했으나, 개인끼리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는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탄23」의 다음 일화 역시 이런 양상을 뒷받침해 준다.

祖車騎(祖逖)는 강남으로 건너왔을 때, 공적·사적으로 검소하여 좋은 의복이나 물건이 없었다. 王導와 庾亮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 조거기를 찾아갔는데, 언뜻 보았더니 갓옷과 핫옷이 겹겹이 쌓여있고 진귀한 장식물이 가득 늘어져 있기에, 여러 인사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 보았더니, 조거기가 말하길: “어제 밤에 또 南唐을 한 차례 다녀왔소”라고 했다. 당시에 조거기는 늘 壯士들로 하여금 복을 치면서 나아가 약탈하게 했는데, 담당 관리들도 (그 일을) 용인해 주고 (죄를) 묻지 않았다. (祖車騎過江時, 公私儉薄, 無好服玩。王·庾諸公共就祖, 忽見裘袍重疊, 珍飾盈列, 諸公怪而問之。祖曰: 「昨夜復南塘一出。」 祖于時恒自使健兒鼓行劫鈔, 在事之人, 亦容而不問。)

검소하기로 유명한 조거기의 집을 방문한 왕도와 유량이 갓옷과 핫옷 및 진귀한 장식물이 집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놀리는 장면이다. 핫옷이라 칭한 袍는 윗저고리로 원래는 衫·褌 등으로 구분되었다가 위진 시대 袍로 통합되어 유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주로 朝服이나 禮服의 용도로 사용된 고급 의복이었다.⁷⁾ 위진 이후로 제왕이나 대신, 관리들이 색깔로 차등을 두었으며 주로 예복으로 사용되었으나, 일반 백성들도 縹袍, 麻袍, 布袍 등 저렴한 옷감으로 핫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유행했다. 평소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石虎를 여러 차례 격파한 호걸이자 검소하기로 명성 높은 조거기의 집안에 쌓여 있던 비싼 핫옷과 갓옷은, 永嘉 연간(307-313) 揚州 지방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조거기의 식객들이 약탈한 물건들로 추정된다. 南唐은 동진의 도성 健康을 흐르는 秦淮河 남쪽 제방으로 지금의 南京

7) 『釋名』: 「褶, 裘也。復袴上之衣也。」

『急就篇』: 「顏注曰: 褶, 謂重衣之最在上者也, 其形若袍, 短身而廣袖, 一曰左衽之袍也。」

『後漢書』卷29 「輿服志」: 「服衣, 深衣制, 有袍, 隨五時色。袍者, 或曰周公抱成王宴居, 故施袍……縫掖其袖, 合而縫大之, 近今袍者也。今下至賤更小史, 皆通制袍。」(北京: 中華書局, 3647쪽.)

김진선, 「中國正史朝鮮傳의 韓國古代服飾」, 단국대 전통의상학 석사논문, 2005, 35, 39, 45쪽.

인데, 이는 가죽 옷이 여전히 귀하고 비싼 품목이긴 하지만 북쪽 지방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으로도 널리 전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환현이 평소 아끼던 나기생을 포로로 잡아 죽이자, 나기생의 모친이 환현이 선물한 갓옷을 불살라 버렸다는 「德行43」의 일화⁸⁾ 역시 당시 가죽 옷이 어느 정도는 보급되어 귀한 이에게 주는 선물의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의복과 장신구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대거 중원에 유입되었다. 이민족 중에는 농경과 재배를 생계수단으로 삼던 종족도 있었으나, 흉노족을 비롯하여 서남이족 등 북방 민족 대부분은 수렵과 목축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식생활도 자연 곡식이나 채소보다는 사냥이나 목축과 관련된 음식이 대부분이었다. 『사기』 「흉노전」이나 『한서』 「爰盎鼂錯傳」⁹⁾ 등의 기록에는 수렵과 목축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유목민의 주식량원이 사냥한 고기나 가축의 젖임을 명시하였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것이 없었으나그 습속은 편하면 가축을 따라 다니면서 새나 짐승을 쏘아 잡는 [사냥을] 생업으로 삼았고...입금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축의 고기를 먹었다.....흉노족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가축에서 나오는 젖을 마셨다.¹⁰⁾

이민족의 식생활에서 한족과 두드러지게 차별된 점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저장방법의 발달이다. 육식의 경우 곡류가 주식인 한족은 대개 부식이나 별식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섭취했던 것에 비해, 이민족들은 주식으로 양고기를 많이 먹었다.¹¹⁾ 또한 초지를 찾아 말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생활에서는 정착생활과는 달

8) 『世說新語』 「德行43」: 「桓南郡既破殷荊州, 收殷將佐十許人; 諮議羅企生亦在焉。桓素待企生厚, 將有所戮, 先遣人語云: 「若謝我, 當釋罪。」 企生答曰: 「爲殷荊州吏; 今荊州奔亡, 存亡未判, 我何顏謝桓公?」 既出市, 桓又遣人問欲何言? 答曰: 「昔晉文王殺嵇康, 而嵇紹爲晉忠臣; 從公乞一弟以養老母。」 桓亦如言宥之。桓先曾以一羔裘與企生母胡; 胡時在豫章, 企生問至, 卽日焚裘。」

9) 『漢書』 卷49 「爰盎鼂錯傳」 第19: 「胡人衣食之業不著於地, 其勢易以擾亂邊境。何以明之? 胡人食肉飲酪, 衣皮毛, 非有城郭田宅之歸居, 如飛鳥走獸於廣野, 美草甘水則止, 草盡水竭則移。」 (2284쪽.)

10)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毋城郭常處耕田之業.....其俗, 寬則隨畜, 因射獵禽獸爲生業,自君王以下, 咸食畜肉。」 (北京, 中華書局, 1959, 2904쪽.)

11) 이상오, 「중국 북방 유목민족 음식문화의 주요 특징」, 『人文學志』 第41輯, 2010, 221쪽.

리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고립된 상황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저장 식품이 필수적이었으므로 말리거나 발효를 시켜 저장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보관 법이 발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酪'이라고 불리는 유즙이다. 유즙은 타락죽이라고도 하며, 대개 가축으로부터 얻는 젖인데 일정 기간 발효 시켜 이동이 잦은 유목생활에서 장기 보관과 휴대가 가능한 식품으로 제작된 것이다.

『세설신어』에도 유즙의 음용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중원의 한족들이 북방 종족의 주식인 유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捷悟2」를 보자.

어떤 사람이 魏武帝(曹操)에게 유즙 한 잔을 보내왔는데, 위 무제는 조금 마신 뒤 뚜껑 위에도 '슴'자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으나,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차례가 楊脩에게 이르자, 양수는 곧 마시고 말하길: “공은 사람들에게 한 모금씩 마시라고 한 것이니,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시오?”라고 했다. (人餉魏武一杯酪, 魏武噉少許, 蓋頭上題合字以示衆 衆莫能解。次至楊脩, 脩便噉曰: 「公教人噉一口也 復何疑?」)

위의 기록은 조조에게 진상된 유즙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일화를 다루고 있다. 『說文』·『釋名』 및 『六書故』 등 고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酪은 유즙으로 목축이 생업인 유목민들이 나타나 양, 말의 젖을 적당히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영양이 풍부한 주요 식량원이었다.¹²⁾ 조조가 위의 전권을 지휘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 누군가가 진상한 음식이라면 분명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흔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조조가 한 모임 시음한 후 관료들에게 '破字' 수수께끼를 내어 모두 나누어 마시도록 유도한 것을 보아 유즙은 누구나 맛 볼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26」에서 자신을 방문한 육기에게 양젖을 대접하는 왕제의 태도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12) 『說文』 「乳漿也。」 『玉篇』: 「漿也, 乳汁作。」
『釋名』: 「酪, 澤也。乳作汁, 所以使人肥澤也。」
『前漢·食貨志』: 「又分遣大夫謁者, 教民煮木爲酪。」

陸機가 왕무자(王濟)를 방문했는데, 왕무자가 그 앞에 여러 곡의 양타락죽을 내놓고서 손가락으로 가리켜 육기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길: “그대의 고향인 江東에서는 무엇이 이것과 비길 만 하오?”라고 하자, 육기가 이르길: “千里湖의 순채국(蓴羹)과 末下의 콩자반(鹽豉)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陸機詣王武子, 武子前置數斛羊酪, 指以示陸曰: 「卿江東何以敵此?」 陸云: 「有千里蓴羹, 末下鹽豉耳!」)

왕제는 武帝의 누이동생과 혼인한 외척이자 石崇·王愷와 함께 서진 시대 사치와 향락을 대표하던 명문귀족이었다. 「汰侈3」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武帝에게 유리그릇에 사람 젖을 먹인 새끼돼지고기 요리를 대접하여 무제를 당황하게 했던 왕제는¹³⁾는 호사스런 생활과 값비싼 용품, 진귀한 음식을 즐겼다. 자신을 방문한 육기에게 대접한 羊酪, 즉 양젖을 발효시킨 유산균 음료는 분명 江東 사족 출신인 육기를 은근히 깔보면서 자신의 재력과 독특한 미각을 과시하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출신 지역을 들어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왕제에게 육기가 응대한 천리호의 순채국과 콩자반이라는 소박한 음식은 양타락죽의 진귀함과 대조를 이루며 愚問賢答의 유명한 일화로 전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민족의 주식량원인 가축의 젖을 발효한 유즙이 한족의 입맛과 섭생에는 어땠을까? 「排調10」을 보자.

陸太尉(陸玩)가 王丞相(王導)을 방문했더니, 王公(王導)이 그에게 타락죽을 대접했다. 육태위는 돌아간 뒤에 결국 병이 났다. 다음날 (육태위가) 왕승상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길: “어제 타락죽을 조금 많이 먹은 탓에 밤새껏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비록 뭇 땅 사람이지만 거의 (북방) 촌놈의 귀신(傖鬼)이 될 뻔했습니다”라고 했다. (陸太尉詣王丞相, 王公食以酪, 陸還遂病: 明日, 與王牋云: 「昨食酪小過, 通夜委頓: 民雖吳人, 幾爲傖鬼。」)

윗글은 王導(267~339)가 陸玩의 방문에 타락죽 즉 유즙을 대접하는 일화이다. 왕도는 北方의 名門世族 琅琊 王氏 가문으로 화북의 혼란을 피해 건강으로

13) 『世說新語』 「汰侈3」: 「武帝嘗降王武子家, 武子供饌, 悉用琉璃器: 婢子百餘人, 皆綾羅袴襪羅, 以手擎飲食. 烝豕肥美, 異於常味, 帝怪而問之. 答曰: 「以人乳飲豕。」 帝甚不平, 食未畢, 便去. 王·石所未知作。」

옻긴 琅邪王 사마예가 317년 동진을 세우는데 크게 활약했다. 북방 귀족인 왕도가 강남에 정착하여 세력을 공고히 하고자 뜻의 명문세가 육완 가문과의 혼인을 추진했던 일화가 「方正24」에 수록되어 있다.¹⁴⁾ 그러니까 왕도로서는 가문의 명망을 높여줄 중요한 손님인 육완에게 흔치 않은 귀한 음식인 타락죽을 대접함으로써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장기 보관을 위해 발효시킨 시큼한 맛의 가축 젖이 곡식과 채소가 주식인 한족 문인의 입에는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고심 끝에 내놓은 귀한 음식을 대접 받은 육완의 심한 배앓이는 유즙이 진귀하고 특이한 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족의 섭생에는 맞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이국의 별미인 유즙은 점차 중원의 식생활에 전파되어 사대부들의 문학 소재로도 종종 사용되었는데, 「언어94」에 실린 다음 일화는 이국 음식인 유즙이 사대부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하나로 편입되었음을 설명한다.

張天錫이 양주자사가 되어 서쪽 지방에서 왕을 참칭했다가, 前秦의 苻堅에게 사로잡혀 侍中으로 기용되었다. 나중에 壽陽에서 함께 패전하여 도성(健康)으로 귀순했다가, 이번에는 孝武帝(司馬曜)에게 등용되었다. 매번 조정에 들어갈 때마다 온종일 무제와 담론하곤 했는데, 그를 못내 시기하는 자가 어떤 자일에서 장천석에게 묻길: “북방에서는 어떤 물건이 귀한 것이오?”라고 하자, 장천석이 말하길: “오디는 달고도 향긋하여 올빼미가 이를 먹으면 그 날카로운 소리가 부드럽게 변하고, 순수한 타락은 온순한 성품을 길러주어 사람들이 이를 먹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라고 했다. (張天錫爲涼州刺史, 稱制西隅, 既爲苻堅所禽, 用爲侍中。後於壽陽俱敗, 至都, 爲孝武所器; 每入, 言論無不竟日。頗有嫉之者, 於坐問張: 「北方何物可貴?」張曰: 「桑椹甘香, 鴟鴞革響; 淳酪養性, 人無嫉心。」)

위의 글은 오호십육국시대 前涼의 9대 왕이자 마지막 왕 장천석(재위 363~376)이 376년 전진에 투항했다가, 383년 동진에 의해 전진까지 패하자 동

14) 『世說新語』「方正24」: 「王丞相初在江左, 欲結援吳人, 請婚陸太尉。對曰: 「培塿無松柏, 薰蕕不同器; 玩雖不才, 義不爲亂倫之始。」

남방의 토착 호족 중 吳郡의 顧·陸·朱·張의 4개 가문과 會稽의 虞·賀·孔·謝의 4개 가문 및 義興朱氏·吳興沈氏이 세력가였다. 왕도는 이 중 육씨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가문의 입지를 넓히고자 한 것이다. (이공범, 『魏晉南北朝史』, 지식산업사, 2003, 202쪽.)

진으로 달아나 涼州刺史의 직위를 받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한족의 후예로 접거지인 涼州의 현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장천석이 동진에 투항하여 양주자사의 직을 제수 받고 북방의 대표적 물건을 소개해 달라는 무제의 청에 오디와 유즙에 대한 특성과 장점을 들어 답한 문학적 표현이 흥미롭다. 장천석은 북방의 대표 음식으로서의 유즙을 예로 들며 발효음식으로 부드럽고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했다.

식품이 한족의 이국적 취향과 미각적 사치를 충족시켜주었다면, 주거생활에 유입된 호족 문화의 특징은 실용성과 편리함이라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胡床 즉 접이 의자이다. 남조 초기만 해도 坐式 생활이 일반적이었다. 『설문』이나 『석명』에 호상에 대한 풀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후한 중후기까지 호상은 중원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⁵⁾ 동진의 화가 顧愷之의 「女史箴圖」에 바닥에 앉아 있는 부인의 그림은 당시 좌식 생활이 보편화된 한족의 주거 양상을 투영한다. 그러나 『삼국지』 「위서·무제기」에 인용된 裴松之 주를 보면 무제의 통치기간인(265-290) 서진 초기, 이미 접의 의자는 황제나 귀족들 사이에 조금씩 사용되었다고 보여 진다.¹⁶⁾ 궁려라고 불리는 천막에서 주로 생활하는 이민족들은¹⁷⁾ 가구나 생활 용구가 매우 간소했다. 이동시 휴대가 가능한 맞춤형 가구로 제작된 것이 호상이며, 의자에 앉는 호상생활 역시 유목과 이동 생활을 하는 북방 민족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진서』 「五行志」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금 太始 이래로 호상과 貂槃을 사용하고 羌煮와 貂炙을 먹는다. 귀족과 부자들이 그런 이민족의 물건들을 쌓아놓고 잔치나 연회 때에 먼저 그것을 내놓는다.¹⁸⁾

연회나 잔치 등 중요한 행사에는 진귀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물건과 음식을 내놓

15) 프랑스 학자 미셸 뷔르들리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의자 사용은 靈帝(168-172) 시기라고 전한다. (『중국의 가구와 실내장식』, 도암기획, 1996. 17쪽.)

16) 『三國志』 「魏書·武帝紀」: 「公將過河, 前隊適渡, 超等奄至, 公猶坐胡牀不起。」

17)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匈奴父子乃同穹廬而臥。」

18) 唐·房玄齡等, 『晉書』 卷27 「五行志」 上: 「泰始之後, 中國相向用胡床貂槃, 及爲羌煮貂炙, 貴人富室, 必畜其器, 吉享嘉會, 皆以爲先。」 (臺北, 鼎文書局, 1987年1月5版), 823쪽.

기 마련이다. 干寶의 『搜神記』 및 『송서』에 따르면 호상과 맥반은 翟族 즉 이민족이 사용하는 용기이고 강자, 맥적은 적족의 음식이다.¹⁹⁾ 『석명』은 맥적에 대해 통으로 구워 저마다 제 칼로 베어 먹는 음식인데 오랑캐 맥인들이 해 먹던 데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²⁰⁾ 泰始는 무제 시기의 연호로 서진 초기에 해당한다. 서진 초기 귀족과 부자들의 연회용 음식과 용기는 북방에서 수입한 강자와 맥적, 맥반과 호상이었다. 위의 기록은 서진 초기에 귀족들이 이국의 문물과 물자들 선호하여 수집하여 사용하면서 보급된 접이 의자는 잔치 때나 사용하는 등 동진 초기까지만 해도 좌식 생활을 하던 한족들에게 특이하고 귀한 물자로 취급되었음을 설명한다.

그러다가 동진에 이르면 호상이 귀족과 부호들 사이에 점차 보급되었다. 「용지 24」를 보자.

庾太尉(庾亮)가 무장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날씨가 좋고 경치 아름다운 가을밤에 막료 은호·왕호지 등이 남루에 올라 시조를 읊조렸다. 음조가 막 높아지려 할 때 계단에서 나막신 소리가 몹시 크게 들렸는데 틀림없는 유공(庾亮)이었다. 잠시 후 (유공이) 종자 10여 명을 이끌고 걸어와... 곧장 접이 의자에 앉아 사람들과 함께 읊조리고 담소하면서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마음껏 즐겼다. (庾太尉在武昌, 秋夜氣佳景清, 佐吏殷浩·王胡之之徒登南樓理詠, 音調始適: ... 定是庾公。俄而, 率左右十許人步來, ... 因便據胡牀, 與諸人詠謔, 竟坐甚得任樂。)

위의 글은 明帝(재위322~325)의 처남 유량이 征西將軍으로 무창에 주둔했을 때 은호와 왕호지 등과 詩作하며 풍류를 즐기는 일화를 수록하였다. 南樓에서 시를 읊조리던 은호와 왕호지를 찾아온 유량 곁에는 좌우 시종이 10여 명이었으며, 그 자리의 명사들이 얼른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했다는 기록은 당시 그의 위세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한다. 자리를 뜨려던 명사들을 만류하며 함께 어울

19) 晉·干寶, 『搜神記』卷7: 「胡床、貊槃, 翟之器也; 羌煮、貊炙, 翟之食也。自太始以來, 中國尚之。」(中華書局, 2012)

沈約, 『宋書』「五行志一」(台北, 鼎文書局, 民國73年1月, 4版, 887쪽. 동일 내용 수록)

20) 『釋名·釋飲食』: 「貊炙, 全体炙之, 各自以刀割, 出於胡貊之爲也。」

린 유량이 얇은 곳은 바로 호상, 즉 접이 의자였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혼자 접이 의자를 펴고 앉은 유량의 태도는 호상이 귀족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휴대하며 사용했던 물건이었음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사마예로부터 정서장군직을 하사 받아 司, 兗, 豫, 并, 雍, 冀 등 여섯 주의 군무를 맡던 戴淵이²¹⁾ 사람들을 진두지휘할 때 호상을 사용했다거나²²⁾ 桓伊이 王徽之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호상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는 기록,²³⁾ 세력이 환온의 방문에도 아랑곳 않고 호상에 앉아 머리를 말렸다는 王恬에 관한 일화²⁴⁾ 등은 당시 명사들 사이에 호상이 권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자존심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태치6」의 기록 역시 귀족과 부호들의 이국 물자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王君夫(王愷)는 八百里駉이라고 부르는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늘 그 밭급과 뿔을 빛나게 닦았다. 王武子(王濟)가 왕군부에게 말하길: “나는 활 쏘는 솜씨가 그대만 못하지만, 지금 그대의 소에 내기를 건다면 (나는) 천만 전으로 상대하겠소”라고 했다. 왕군부는 (자신의) 민첩한 솜씨에 자신이 있었으며 게다가 (왕무자가) 훌륭한 소를 죽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허락하고서 왕무자에게 먼저 쏘라고 했다. 왕무자는 한 발에 파녀를 명중시킨 뒤 물러나 간의의자에 기대 앉아 시종에게 소리치길: “속히 소의 심장을 꺼내 오라!”고 했다. 잠시 후에 구운 (소 심장) 고기를 가져오자, (왕무자는 딱) 한 점만 먹고 가 버렸다. (王君夫有牛, 名「八百里駉」, 常瑩其蹄角. 王武子語君夫: 「我射不如卿, 今指賭卿牛, 以千萬對之。」 君夫既恃手快, 且謂駿物無有殺理, 便相然可, 令武子先射. 武子一起

21) 박덕규, 『중국역사이야기2』, 일송북, 2008, 322쪽 참조.

22) 『世說新語』「自新2」: 「戴淵少時, 遊俠不治行檢, 常在江·淮間攻掠商旅. 陸機赴假還洛, 輜重甚盛, 淵使少年掠劫; 淵在岸上, 據胡牀, 指麾左右, 皆得其宜. 淵既風姿峯穎, 雖處鄙事, 神氣猶異. 機於船屋上遙謂之曰: 「卿才如此, 亦復作劫邪?」 淵便泣涕, 投劍歸機, 辭厲非常. 機彌重之; 定交, 作筆薦焉. 過江, 仕至征西將軍)

23) 『世說新語』「任誕49」: 「王子猷出都, 尚在渚下, 舊聞桓子野吹笛, 而不相識. 遇桓於岸上過, 王在船中, 客有識之者云: 「是桓子野。」 王便令人與相問云: 「聞君善吹笛, 試爲我一奏。」 桓時已貴顯, 素聞王名, 即便迴下車, 踞胡牀, 爲作三調; 弄畢, 便上車去. 客主不交一言。」

24) 『世說新語』「簡傲12」: 「謝公嘗與謝萬共出西, 過吳郡, 阿萬欲相與共奉王恬許. 太傅云: 「恐伊不必酬, 汝意不足爾!」 萬猶苦要, 太傅堅不回, 萬乃獨往; 坐少時, 王便入閣內, 謝殊有欣色, 以爲厚待己. 良久, 乃沐頭散髮而出, 亦不坐, 仍據胡牀, 在中庭曬頭; 神氣傲邁, 了無相酬對意. 謝於是乃還, 未至船, 逆呼太傅. 安曰: 「阿麟不作爾!」

便破的：卻據胡牀，叱左右：「速探牛心來！」須臾炙至，一嚮便去。）

윗글은 이국의 물자와 문명을 애호했던 당시 명사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석승·왕개 등과 함께 사치와 향락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왕제 역시 북방에서 건너 온 접이 의자를 애용했다. 왕개와의 내기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왕제가 휴대용 접이 의자에 앉아 팔백리박이라는 희귀한 소를 죽여 심장을 구워 거만하게 딱한 점만 먹고 떠난 이야기는 당시 명문 귀족의 권세와 사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 일화에서 왕제가 접이 의자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권문세가들은 야외 활동 시에 접이 의자를 즐겨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가 가능했던 접이 의자 호상은 평범한 귀족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용과 보관이 부담스럽고 흔치 않은 귀한 이국 문화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호상은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족의 귀족이나 부호들에게 야외 활동 시 간소하게 휴대할 수 있는 실용적 용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재력,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일종의 특권적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위진남북조 시기에 중원에 유입된 갓옷, 유즙, 호상 등 북방의 문물들은 이국적 정취를 음미하려는 제왕이나 귀족, 부호들의 사치 수요와 일상생활의 실용적 요구 및 부와 권력을 대변해주는 상징물로서 상업적 의미를 넘어 문화적 심리를 충족시키는 시대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3. 언어 장벽의 와해와 세계관의 확장

국경을 넘나들며 전투, 외교, 통혼, 무역 등 정치·경제·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종족 간 언어의 이해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당시 각 종족의 언어를 습득하여 통역하는 일은 외교나 경제 교류에 중요한 조건이었다. 한말 변경에는 이미 이민족과 한족이 잡거하는 형세였으므로 위진 시대 종족 간 언어에 대한 이해와 구사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종족 간의 의사소통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오호십육국이 난립하기는 했어도, 동진 중기에 이르기까지 이민족 언어를 이해 못 해 난감한 경우는 종종 발생했다. 「언어68」를 보자.

王仲祖(王濛)가 南蠻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여 망연히 말하길: “만약에 介國의 葛盧를 來朝하게 한다하더라도 당연히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王仲祖聞蠻語不解, 茫然曰: 「若使介葛盧來朝, 故當不昧此語。」)

왕몽은 동진 중기의 인물로 哀帝 司馬丕의 皇后인 王穆之의 부친이다. 청담에 능하여 永和 2년(346) 司馬昱에게 발탁되어 劉惔과 함께 入室之賓으로 불렸으며 司徒左長史를 역임할 정도로 문재와 사교에 능해 수많은 어록을 남겼던 왕몽에게도 남만의 말은 해독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개국, 즉 같은 이민족국인 東夷國의 임금인 갈로일지라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왕몽의 발언은 외국어로서의 이민족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변경 지역을 관할하거나 외교 사절을 담당하는 관리의 경우는 해당 종족 언어를 습득하거나 통역관을 반드시 대동해야만 했다. 『魏書』 卷「張袞傳」에는 左長史 張袞이 拓跋珪 道武帝의 柔然遠征에 종군할 당시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張袞은) 太祖 (道武帝)의 蠕蠕(柔然)遠征에 종군했다. 蠕蠕이 도망가자 蠕蠕을 5-600리나 추격하였다. 부락의 장수들이 장군을 통해 태조에게 ‘지금 賊은 멀고 식량은 다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히 회군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太祖는 장군에게 명하여 부수에게 만약 副馬를 죽이면 죽히 사흘 치 식량이 될 수 있는지 묻게 하였다. (부수들은) 모두 죽하다고 대답하였다. 태조는 하루에 이틀 갈 속력으로 유연을 추격하여 넓은 모래사막과 붉은 땅에 있던 南床山 기슭에서 유연을 大破하였다. 태조는 장군에게 ‘경들 外人은 내가 전에 사흘 치 식량에 대해 물은 뜻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장군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조는 ‘이는 알기 쉬운 것이다. 유연이 달아난 지 수일인데 남아있는 가축들은 물가에 도달하면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 그 道程을 계산해보면 사흘이면 죽히 도달할 수 있다. 輕騎가 갑자기 유연

이 있는 곳에 이르러 상대방을 기습하면 그들은 반드시 놀라 흩어질 것이다. 勢란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장곤이 나와서 태조의 말을 부락의 우두머리들에게 고하자 모두 '聖策이 長久하여 어리석은 우리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²⁵⁾

위 일화는 동진 孝武帝 太元16년(391)의 사건으로 북위의 도무제가 유연을 정벌할 당시 좌장사 장곤이 도무제와 여러 부락 수장들 사이의 의사 전달을 담당했음을 설명한다. 장곤은 上谷郡 沮陽縣 출신으로 대대로 조부와 부친이 태수를 역임한 한족이다.²⁶⁾ 유가사상을 존중하여 태학을 세우고 오경박사를 두는 등 한족 문화와 사대부를 중시한 도무제는 한족인 장곤을 크게 신임하여 그를 참모겸 서기인 좌장사에 제수했다. 위 기록은 시기적으로 북위가 河北을 점령하기 전으로 도무제가 선비족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유연을 정벌할 당시의 상황이다. 당시 태조의 참모인 장곤이 여러 수장들의 의견과 도무제의 명령 하달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한족임에도 선비족 언어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비나 남만 등 이 시기 이민족들의 언어는 어떠했을까? 당시 이민족들에게는 고유의 문자가 없어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사서나 문학 작품 속의 기록들을 통해 그 언어의 흔적들을 추적해볼 수 있다. 『세설신어』에도 곳곳에 북방 언어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 「政事12」를 보자.

王丞相(王導)이 揚州刺史에 제수되었을 때, 수백 명의 빈객이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아 모두들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오직 臨海의 任氏라는 한 손님과 胡人만이 흡족해 하지 않았다. 그래서 王公(王導)이 소변보러 갔다 오면서 임씨 곁을 지나치며 말하길 “그대가 떠나오니 입헤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겠지요”라고 하자, 임씨가 크게 기뻐했다. 또한 호인들

25) 『魏書』 卷24 「張袞傳」: 「從太祖征蠕蠕。蠕蠕遁走, 追之五六百里。諸部帥因袞言於太祖曰: 「今賊遠糧盡, 不宜深入, 請速還軍。」太祖令袞問諸部帥, 若殺副馬, 足三日食否。皆言足也。太祖乃倍道追之, 及於廣漠赤地南床山下, 大破之。既而太 II 問袞: “卿曹外人知我前問三日糧意乎?” 對曰: “皆莫知也。” 太祖曰: “此易知耳。纒燈奔走數日, 畜產之餘, 至水必留。計其道程, 三日足及。輕騎卒至, 出其不意, 彼必驚散, 其勢然矣。” 袞以太祖言出告部帥, 咸曰: 「聖策長遠, 非愚近所及也。」」(北京, 中華書局, 1974年, 612쪽.)

26) 『魏書』 卷24 「張袞傳」 「張袞, 字洪龍, 上谷沮陽人也。祖翼, 遼東太守。父卓, 昌黎太守。袞初為郡五官掾, 純厚篤實, 好學, 有文才。」(612쪽.)

앞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을 튕기며 말하길: “蘭閣! 蘭閣!”라고 하자, 여러 호인들이 함께 웃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王丞相拜揚州, 賓客數百人並加霑接, 人人有悅色; 唯有臨海一客姓任, 及數胡人爲未洽。公因便還, 到過任邊云: 「君出, 臨海便無復人。」任大喜悅。因過胡人前彈指云: 「蘭閣, 蘭閣。」群胡同笑, 四坐並權。)

위의 일화는 빈객을 응대하는 왕도의 노련한 태도와 문화적 소양에 관해 다루고 있다. 山東 臨沂 출신으로 동진 司馬정권 건국 공신인 왕도는 江南의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세력을 공고함으로써 사촌형 王敦의 반란에도 남아 왕씨 가문의 명망을 유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처세에 강했던 인물이다. 『晉陽秋』에 따르면 왕도는 친하건 그렇지 않건 정성을 다해 대접하여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드물었다고 한다.²⁷⁾ 자신의 양주자사 임명식에 초대된 수백 명의 빈객이 융숭한 대접으로 호뭇해할 때, 소외된 임해의 빈객과 호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응대하는 그의 능수능란함이 돋보인다. 왕도는 중원의 땅과 말, 분위기가 낯선 호인들에게 ‘蘭閣’라는 단어를 재치 있게 던져 먼 이국의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 ‘난도’는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로 왕 혹은 승려를 지칭하며 칭찬과 환대의 뜻이 담겨 있다.²⁸⁾ 간단하지만 적절한 언어구사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왕도의 일화는 당시 명사들의 이민족 언어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소양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호어를 문학 작품에 활용한 예가 「배조35」에 수록되어 있다.

郝隆이 桓公(桓溫)의 南蠻參軍이 되었다. 3월 3일의 모임에서 시를 지었는데, 짓지 못하는 자는 벌주 3되를 마셨다. 학룡이 맨 처음 짓지 못하여 벌주를 받았는데, 다 마시고 나더니 붓을 쥐고서 바로 한 구절을 짓길: “추우(媿偶)가 맑은 연못에서 뛰노네”라고 했다. 환공이 묻길: “추우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자, 대답하길: “남만에서는 물고기를 추우라고 합니다”라고 했다. [다시] 환공이 말하길: “시를 짓는데 어찌하여 남만의 말을 쓰는가?”라고 했더니, 학룡이 말하길: “천리 길을 달려와 공께 의탁하여 비

27) 劉孝標注引: 晉 孫盛『晉陽秋』: 「王導接誘應會, 少有悟者, 雖疏交常賓, 一見多輪寫款誠, 自謂爲導所遇, 同之舊暱。」

28) 黎靖德『朱子語類』卷136: 「王導爲相, 只周旋人過一生。謂胡僧曰: 『蘭奢, 蘭奢。』乃胡語之褒譽者也。」(北京, 中華書局新校標點本, 1981, 3243쪽.)

로소 蠻府의 참군이 되었으니, 어찌 남만의 말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郝隆爲桓公南蠻參軍, 三月三日會, 作詩, 不能者罰酒三斗。隆初以不能受罰, 既飲, 攬筆便作一句云:「娥隅躍清池。」桓問:「娥隅是何物?」答曰:「蠻名魚爲娥隅。」桓公曰:「何爲作蠻語?」隆曰:「千里投公, 始得一蠻府參軍, 那得不作蠻語也!」)

동진의 2대 황제 明帝의 사위로 막강한 세력을 휘두른 환온이 군사상 요지인 옹주, 양주를 통괄하는 征西大將軍을 지낼 때의 일화이다. 환온의 남만 참모였던 학룡은 문학적 재능과 재기가 뛰어난 인물이었다.²⁹⁾ 학룡은 당시 환온의 속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할하던 남만의 말인 ‘추우’를 사용하여 시를 짓는다. 河南汲郡 출신으로 북쪽이 고향이던 학룡의 남만어 구사에 의아해하는 환온과 남만을 관할하는 참군으로서 그 언어를 익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하는 학룡의 답을 통해 이민족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지위에 따라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위 관직자 환온은 통역을 통해 보고를 받으면 되었지만, 실무 담당의 말직인 참군 학룡은 어느 정도의 남만어 구사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문장에 남만어를 활용할 정도라면 학룡의 남만어 실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민족 언어는 잦은 접촉과 높은 수요로 변경 지역의 관리나 명사들을 중심으로 점차 전파되었으며 나아가 문학작품의 소재로 사용되는 등 중원의 언어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민족의 생활양식과 문화가 중원에 전파되면서 종족 차별의 개념은 점차 와해되는 반면 지역 차별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졌다. 이 현상이 투영된 대표적 언어가 ‘촌사람·촌무지렁이·촌놈’ 등의 의미로 사용된 ‘儻’이다. 「假譎11」를 보면 ‘창’은 본래 편혜의 뜻이 없이 단순히 북방인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29) 「排調31」과 「排調32」에는 학룡의 문학적 재기와 신랄한 풍자의 언행이 수록되어 있다.
「排調31」:「郝隆七月七日, 出日中仰臥。人問其故? 答曰:「我曬書。」」
「排調32」:「太傅始有東山之志, 後嚴命屢臻, 勢不獲已, 始就桓公司馬。于時人有餉桓公藥草, 中有「遠志」, 公取以問謝:「此藥又名『小草』, 何以一物而有二稱?」謝未即答。時郝隆在坐, 應聲答曰:「此甚易解: 處則爲遠志, 出則爲小草。」謝甚有愧色。桓公目謝而笑曰:「郝參軍此通乃不惡, 亦極有會。」」

愍度道人(支愍度)이 처음 강남으로 건너가려 했을 때, 북방 스님(僧) 한 명과 동행했는데, (서로) 의논하길 “(佛學의) 옛 해석을 가지고 강남으로 간다면 아마 밥도 얻어먹지 못할 것이오”라고 하고는, 곧장 함께 「心無義」라는 해석을 만들었다. 그 후 스님은 (강남으로) 건너갈 수 없었지만, 민도는 (강남에서) 버젓이 〈심무의〉를 강론했다. 나중에 북방 사람이 왔는데, 이전의 그 스님이 전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르길: “나를 대신해서 민도에게 내 뜻을 전하시게. 〈심무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애당초) 그 계획을 생각해 냈던 것은 잠시 배고픔을 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으니, (그로 인해) 여래불께 죄를 짓지 말라고!”라고 했다. (愍度道人始欲過江, 與一僧道人爲侶, 謀曰: 「用舊義往江東, 恐不辦得食」 便共立「心無義」。既而, 此道人不成渡, 愍度果講義積年, 後有僧人來, 先道人寄語云: 「爲我致意愍度, 無義那可立? 治此計, 權救饑爾: 無爲遂負如來也」)

위 일화는 원래 ‘창’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북방의 스님이나 북방 사람을 칭할 때 ‘僧人’이라고 지칭했는데 여기에는 무시나 멸시의 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점차 ‘창’은 북방 사람의 투박하고 거친 지방색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창부라는 호칭은 창인과 같은 의미로, 토착 남방인이 이주해온 북방인에 대한 멸시와 폄훼의 호칭이 되었다. 당시 남방 귀족들은 북방보다 中華 관념이나 華夏적 자존감이 강했는데, 이런 관념은 서진이 오를 멸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동진대에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북방 이민족과 한족 북방인을 하나의 무리로 인식하면서 북방 출신을 모두 싸잡아 창부·창인이라 불렀다. 그 사례들이 「雅量18」·「품조29」·「簡傲17」·「배조10」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簡傲17」은 남방인들의 북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王子敬(王獻之)이 會稽로부터 吳郡을 지나가다가 고벽강이 훌륭한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왕자경은) 그전까지 주인과 면식이 없었지만 곧장 그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둘러보고 나서는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손하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정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평했다. 고벽강은 발끈하여 참지 못하고 말하길: “주인에게 오만한 것은 예의가 아니며, 귀하다고 남에게 교만한 것은 도리가 아니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촌무지렁이(僧)일 뿐이오!”라고 했다. (王子敬自會稽經吳, 聞顧辟疆有名園, 先不識主人, 徑往其家:

值顧方集賓友酣燕園中，而王遊歷既畢，指麾好惡，傍若無人。顧勃然不堪曰：「傲主人，非禮也；以貴驕人，非道也。失此二者，不足齒之倫耳！」便驅其左右出門。王獨在輿上展轉，顧望左右移時不至，然後令送箸門外，怡然不屑。）

이 일화에서도 왕헌지의 본적이 지금의 山東省인 낭야, 즉 북방이었기 때문에 고벽강이 그를 ‘촌무지렁이’이라 부른 것이다. 고벽강은 자신의 집 정원을 지적하는 왕헌지의 거침없음을 싸잡아 ‘무례하고 교만한 북방인’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창’이 북방 출신 한족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당시 귀족들의 북방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심을 투영하는 동시에 종족 차별보다 지역 차별이 심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즉 민족적 유대감이 점차 와해되고 문화적 유대감이 강화된 시대의 특징이 언어에 투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유입과 수용은 문화와 사상의 교류를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종족 간 가치관과 문화적 소양의 차이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민족들은 우수한 한족 문화에 대해 강한 동경을 품었으며, 한족의 세련된 지성을 학습했다. 「용지」의 일화는 이런 풍조를 대변한다.

魏武帝가 장차 흉노의 사신을 접견하려 할 때, (자신의) 모습이 볼품 없어서 먼 나라에 위엄을 보이기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崔季珪(崔琰)에게 대신 접견하도록 하고 무제 자신은 칼을 들고 어좌 앞에 서 있었다. (접견이) 다 끝난 뒤에 첩자를 보내 (사신에게) 물어 보길: “위왕은 어떠하더이까?”라고 했더니, 흉노의 사신이 대답하길: “위왕의 훌륭한 의용은 비범하시지만, 어좌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시더군요”라고 했다. 위 무제는 보고를 듣고 그 사신을 추격하여 살해하게 했다. (武將見匈奴使，自以形陋，不足雄遠國：使崔季珪代。帝自捉刀立牀頭，既畢，令間諜問曰：「魏王何如？」匈奴使答曰：「魏王雅望非常，然牀頭捉刀人，此乃英雄也！」魏武聞之，追殺此使。)

이 고사는 위진 시대 당시 성행하였던 인물 품평의 풍조를 조명하는 동시에 조조의 지략과 인물의 내면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이 고사에서 조조의 인물됨을 알아보는 흉노측 사신의 인물 식견 능력과 조에는

위진 명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다. 조조의 외모가 초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임을 알아보는 사신의 뛰어난 안목은, 식인·지인의 풍조가 만연했던 위진의 문화적 소양이 이민족들에게도 전파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識鑿7」에 수록된 석륵의 일화는 이민족 정권의 한족 문화에 대한 동경과 열의를 시사하는 대표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다.

石勒이 글을 몰라서 부하에게 『漢書』를 읽게 했는데, 酈食其가 六國(漢魏趙齊燕楚)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라고 (한고조 劉邦)에게 진언하자 (유방이 그 진언을 받아들여) 인장을 새겨 장차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대목을 듣고는 놀라 말하길: “이 방법은 실수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말인가?”라고 했다. (잠시 후) 유후(張良)가 (그 진언을) 저지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내 말하길: “이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군!”라고 했다. (石勒不知書, 使人讀漢書, 聞酈食其勸立六國後, 刻印將授之, 大驚曰: 「此法當失, 云何得遂有天下?」 至留侯諫, 酒曰: 「賴有此耳!」)

오호십육국 시대 後趙의 초대 황제(재위, 319-333)인 석륵은 흉노족의 후예인 羯族의 수장으로³⁰⁾ 전조를 멸한 뒤 화북 일대에까지 세력을 떨친 무장이자 뛰어난 통치자였다. 젊어서부터 포로, 노예 생활로 단련된 석륵이 유랑 농민들을 규합해 대오를 만들어 통치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뛰어난 전투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뒷받침되었다. 특히 석륵이 한족 선비 張寶를 등용하여 만든 엘리트 선비 부대인 ‘君子營’은 그가 후조의 초대 황제가 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종족의 고유한 문자가 없던 이민족들은 한족과 접촉하면서 한어를 음차하여 언어의 발음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사서나 문학 작품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문맹이었지만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석륵의 중원 인문학에 대한 심취와 배움의 자세는 문화와 문화에 대한 소양이 더 이상 한족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석륵의 조카로 후조의

30) 『晉書』 卷104 「石勒載記」: 「石勒字世龍……上黨武鄉羯人也。其先匈奴別部羌渠之胄。」(2707쪽.)

『魏書』 卷95 「羯胡石勒傳」: 「分散居於上黨武鄉羯室, 因號羯胡。」(2047쪽.)

3대 황제였던 석호에 대한 「언어45」의 다음 기록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불도징이 석씨 일족과 교유했는데, 임공(支遁)이 말하길: 불도징은 石虎를 바다 갈매기로 여기고 있다”라고 했다. (佛圖澄與諸石遊, 林公曰: 「澄以石虎爲海鷗鳥。」)

서역의 승려였던 불도징(233-348)은 불심 전파를 위해 310년 서진의 洛陽에 왔다. 널리 弘法을 전파하면서 십육국시대의 세력가들과 불교를 통한 결합을 주도했던 불도징의 불심에 흥 도각 부족 오천 명을 낙양에서 생매장하는 등 잔인무도했던 석류과 석호 역시 감화되었다. 석류이 문화와 문학을 중시하며 후조의 건국에 한족의 인재를 등용하게 된 배후에는 불도징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석류 사후, 후조의 3대 황제에 오른 석호 역시 불도징을 ‘大和尚’이라 칭하며 크게 의지했다. 이름난 폭군이던 석호에게 불도징은 수시로 자비와 인과응보를 설교하며 계를 잘 지킬 것을 설득했다. 위의 글은 불도징이 포악한 석호를 갈매기처럼 유순하게 길들였다는 의미로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듯 이민족 전반에 걸친 문화적 소양의 고양은 이민족에 대한 한족의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企羨5」를 보자.

郗嘉賓(郗超)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견과 비교하자 크게 기뻐했다. (郗嘉賓得人以己比苻堅, 大喜)

『진서』 卷113 「符堅載記」에 따르면 前秦의 제3대 왕(재위 357~385) 부견은 효성이 깊고 박학다식하며 재주가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한인 학자인 王猛을 등용하여 대학을 정비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중농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과업을 통해 국세를 확장하며 前燕과 전량을 멸망시켰다.³¹⁾ 비록 氐族 출신 이민족이지만 유학에 대한 깊은 조예와 뛰어난 통치력으로 일시적이거나

31) 『晉書』 卷113 「符堅載記」: 「性至孝, 博學多才藝, 有經濟大志, 要結英豪, 以固緯世之宜…自永嘉之亂, 庠序無聞, 及堅之僭, 頗留心儒學, 王猛整齊風俗, 政理稱舉, 學校漸興. 關、隴清晏, 百姓豐樂。」

마 화북을 통일했던 부건을 존중하는 한인 학자 치가빈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이민족을 낳고기나 먹고 가죽이나 걸치는 예의 없는 야민인 취급하며 멸시하던 중화적 자존감과 화하 문명에의 우월감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민족을 夷·蠻·戎·狄이라 칭하며 무시와 멸시, 우월감과 자만이라는 이분법적 종족 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종족관을 설계해나가는 의식의 확장으로 보인다. 즉 유가적 전통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과 한족 중심의 배타적인 유대감, 집단 사고의 틀을 탈피한 다양화·국제화·세계화의 출발로 보이는 변화의 조짐이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윤리강령과 가부장제, 화하 중심주의에 고착되어 있던 중원 문화의 편협한 의식이 동아시아 문명으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진 시대가 대내적으로 잦은 전란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내적 분열과 사회질서의 균열이라는 감내해야 했지만, 역사적으로 거시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귀중한 계기가 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4. 변화된 남녀관과 젠더 질서의 재편

위진 시대 유목 문화와 중원 문화의 융합은 종족 간의 통혼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한족과 이민족과의 통혼은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연히 시행되었음은 문헌상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한대 이후의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중국 북방 유목민족 중 최초로 제국을 이룬 흉노의 등장 이후 더욱 빈번하였다. 기원전 4세기, 유목사회의 급격한 통합으로 형성된 흉노의 제국화는 중원의 화하 문명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흉노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이민족을 토벌함으로써 완벽한 통일 제국을 이루려 했던 한 고조의 야망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한나라를 공격한 목욕에 항복하면서 무너졌다. 대신 흉노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며 황실의 여인을 선물하기로 하면서 중원 사회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던 이민족과의 정식 통혼이 화친의 방편으로 공공연하게 시행되었다. 한 元帝의 후궁 왕소군이 흉노 호한야에

계 시집간 「賢媛2」의 고시는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漢나라 元帝(劉奭)는 궁녀가 너무 많아서 畫工에게 그들의 초상을 그리게 하여, 부르고 싶은 궁녀가 있으면 곧 그 초상화를 펼쳐보고 불러들이곤 했다. 궁녀 중에서 보통인 자들은 모두 뇌물을 썼지만, 王明君은 용모와 자태가 매우 아름다워 굳이 구차히 부탁할 뜻이 없자, 畫工은 그 용모를 못나게 그렸다. 후에 匈奴가 화친을 맺고자 찾아와 漢 원제에게 미녀를 요구하였고, 원제는 명군을 보내기로 하였다. 접견하여 아쉬워했지만, 명단이 이미 넘어가서 중간에 바꾸고자 하지 않으니 결국 그녀가 가게 되었다. (漢元帝宮人既多, 乃令畫工圖之, 欲有呼者, 輒披圖召之. 其中常者, 皆行貨賂. 王昭君姿容甚麗, 志不苟求, 工遂毀爲其狀. 後匈奴來和, 求美女於漢帝, 帝以昭君充行. 既召見, 而惜之; 但名字已去, 不欲中改, 於是遂行.)

이밖에도 『한서』에 “군주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변방의 이민족 통치자와 통혼하여 한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나³²⁾ 烏孫왕 昆莫獵驕靡에게 시집간 劉建의 딸 細君공주 및 오손왕 軍須靡에게 시집간 解憂공주를 비롯하여 흉노에게 납치되어 12년 간 좌현왕의 아내로서 살았던 채문희의 일화는 이민족의 위협에 대응하는 화친의 방편으로 공공연하게 시행되었던 통혼의 양상을 설명해주고 있다.³³⁾

이러한 현상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위진 시대에는 한족과 이민족 간의 마찰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정치·경제적 법령 이외에 종족 간의 통혼을 공공연히 활용하였다. 특히 오호십육국시대에 이르러 혼인은 공공연히 거래나 협약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현원2」을 보자.

32) 『漢書』 卷94上 「匈奴傳」 第64上: 「是時匈奴以漢將數率眾往降, 故冒頓常往來侵盜代地. 於是高祖患之, 乃使劉敬奉宗室女翁主為單于閼氏, 歲奉匈奴絮繒酒食物各有數, 約為兄弟以和親, 冒頓乃少止。」 (2779쪽.)

33) 『後漢書』 卷84 「列傳74·董祀妻」: 「陳留董祀妻者, 同郡蔡邕之女也, 名琰, 字文姬. 博學有才辯, 又妙於音律. 適河東衛仲道. 夫亡無子, 歸寧於家. 興平中, 天下喪亂, 文姬為胡騎所獲, 沒於南匈奴左賢王, 在胡中十二年, 生二子. 曹操素與邕善, 痛其無嗣, 乃遣使者以金璧贖之, 而重嫁於董祀。」 (范曄(南朝宋), 上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2800~2801쪽.))

桓宣武(桓溫)가 蜀을 평정하고 李勢의 여동생을 첩으로 삼았는데, 매우 총애하여 늘 서재 뒷방에 머물게 했다. (부인) 공주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듣고 나서 시녀 수십 명을 거느리고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쳐들어갔다. 마침 이씨는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땅에 치렁치렁하고, 피부색은 옥처럼 빛났으며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씨가) 천천히 말하길: “나라가 무너지고 집안이 망하여 무심결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만약 죽게 될 수 있으면 곧 바라던 바입니다” 공주는 부끄러워 물러갔다. (宣武平蜀, 以李勢妹爲妾, 甚有寵, 常簪齋後. 主始不知, 既聞, 與數十婢拔白刃襲之. 正值李梳頭, 髮委藉地, 膚色玉曜, 不爲動容. 徐曰: 「國破家亡, 無心至此. 今日若能見殺, 乃是本懷!」主慙而退)

동진의 정치가이자 군인인 환온(312년~373년)은 촉 지역을 평정하여 成漢³⁴⁾의 제5대 왕이자 마지막 왕 李勢(재위 343~347)의 여동생을 첩으로 삼음으로써 명실공히 동진의 세력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된다. 명문가 출신이면서 황제의 사위이자 군 총사령관으로 桓征西 宣武公으로 불리며 동진의 최고 실권을 쥐 환온은 名門大族인 太原王氏와도 혼인 관계를 맺는 등 혼인을 통해 세력가로 성장한 인물이다. 당시 환온의 성한 점령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豪爽8」의 다음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桓宣武(桓溫)가 蜀을 평정하고 나서 막료들을 소집하여 李勢의 궁전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巴와 촉의 벼슬아치 가운데 모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桓宣武平蜀, 集參僚置酒於李勢殿, 巴·蜀縉紳, 莫不悉萃. 桓既素有雄情爽氣, 加爾日音調英發, 敘古今成敗由人, 存亡繫才, 奇拔磊落, 一坐讚賞不暇. 坐既散, 諸人追味餘言, 于時尋陽周馥曰: 「恨卿輩不見王大將軍!」馥曾作敦揆.)

파촉의 벼슬아치가 모두 모였다는 기록은 동진의 최고 세력가로서의 환온의 위세를 보이는 동시에 성한 정복이 국사에 매우 중대한 일이었음을 시사한다. 성한 왕족과의 혼인을 통한 견고한 관계 형성은 지리적 점령을 넘어 정치적·심리적 점령을 의미했다. 통혼은 성한 민중의 심리적 우위를 과시하는 중요한 행위였다.

34) 오호십육국 티베트계 氏族의 일파였던 파저족.

왕족들의 통혼을 통한 세력 구축은 당시 사회의 암묵적인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수용되었다. 이민족 혈통의 황제가 승계되는 경우가 「가홀6」에 실려 있다.

王大將軍(王敦)이 반란을 일으켜 군대를 姑孰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晉明帝(司馬紹)는 영민하고 용맹했지만 의심하고 꺼리는 마음이 들어서, 군복을 입고 巴賓馬를 타고 황금 채찍을 들고 몰래 군대의 형세를 정찰하러 나갔다. 십여 리를 채 못 갔을 때, 어떤 떠돌이 노파 하나가 객사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명제는 그곳에 들러 쉬면서 노파에게 말하길: “왕돈이 군대를 일으켜 반역을 도모하면서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의심하고 살해하는 바람에 조정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나라가 근심에 빠져 있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정찰하러 나왔네. 정체가 탄로 나서 혹시 일이 잘못될까 걱정이니, 추격당하는 날엔 노파가 숨겨주었으면 하네”라고 했다. 그리고는 곧장 떠돌이 노파에게 채찍을 주고 떠나, 왕돈의 군영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왔는데, 병사가 알아차리고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왕돈은 누워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뛰는 가슴으로 말하길: “이는 틀림없이 누런 수염의 선비족 놈이 온 것이다!”라고 했다 (王大將軍既爲逆, 頓軍姑孰. 晉明帝以英武之才, 猶相猜憚, 乃簪戎服, 騎巴賓馬, 齎一金馬鞭, 陰察軍形勢. 未至十餘里, 有一客姥, 居店食, 帝過愒之, 謂姥曰: 「王敦舉兵圖逆, 猜害忠良, 朝廷駭懼, 社稷是憂, 故劬勞晨夕, 用相胡察. 恐形迹危露, 或致狼狽. 追迫之日, 姥其匿之.」 便與客姥馬鞭而去. 行敦營匿而出, 軍士覺, 曰: 「此非常人也!」 敦臥心動, 曰: 「此必黃須鮮卑奴來!」 命騎追之, 已覺多許里. 追士因問向姥: 「不見一黃須人騎馬度此邪?」 姥曰: 「去已久矣, 不可復及.」 於是騎人息意而反.)

동진의 2대 황제 명제 사마소는 西晉의 왕족으로, 琅邪王의 가문 元帝 司馬睿의 장자로 태어났다. 『진서』 卷6 「明帝」에는 “황제의 어머니 荀氏는, 燕지방의 代 땅 사람이다. 황제 집안의 외족들은 누런 수염이 있었는데 왕돈이 이 이유로 황제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 전한다.³⁵⁾ 代는 燕나라와 趙나라 사이의 땅이름인데, 선비족인 拓拔 魏씨의 도읍 平城縣이 속한 代郡을 지칭한다.³⁶⁾ 즉 모친 司馬睿가

35) 『晉書』 卷6 「明帝紀」 「六月, 敦將舉兵內向, 帝密知之, 乃乘巴滇駿馬微行, 至于湖, 陰察敦營壘而出. 有軍士疑帝非常人. 又敦正晝寢, 夢日環其城, 驚起曰: 「此必黃鬚鮮卑奴來也.」 帝母荀氏, 燕代人, 帝狀類外氏, 鬚黃, 敦故謂帝云.」(161쪽.)

36) 盧文弨 注引 閻若璩 『潛邱札記』: 「有以恆代之遺風問者, 余曰: 拓拔魏都平城縣, 縣在今大同府治東五里, 故址猶存. 縣屬代郡, 郡屬恆州, 所云恆代之遺風, 謂是魏氏之舊俗耳.」

선비족이며 명제 역시 선비족의 외형적 특징인 누런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제의 부친 원제 사마예는 武帝 司馬炎의 증손으로 명문세가 낭야 가문의 왕돈 일족의 지원으로 왕위에 올라 그 황제로서의 권위를 낭야 일족과 공유해야 했다. 더구나 자신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진 선제의 아들 사마근의 왕후 夏侯氏와 牛金이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소문³⁷⁾에 시달리는 등 황제로서의 입지가 취약했다. 즉위 전부터 지지 기반이 황제로서 출발하지 못한 원제는 세력 확보를 위해 낭야 일족과의 교분 유지와 함께 북 지방 호족과 華北 출신 士族을 회유하는 등 독자적인 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마예가 낭야 일족과 혼인하여 적통을 이었다면 그는 분명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낭야 세력에 전권을 내주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독자적 세력 확보를 위한 사마예의 선택은 선비족 출신 순씨와의 통혼과 그 적통의 후계자 승계였던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통혼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통치 계층의 전략적 수단이기도 했으나, 이민족과의 자연스런 접촉과 교류, 잡거 등의 양상은 사대부나 일반인들 사이에도 종족 간 결합이 공공연히 수용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任誕15」의 일화를 보자.

阮仲容(阮咸)은 이전에 고모 집의 鮮卑族 하녀를 총애했다. 모친상을 치르고 있을 때 고모가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녀를 남겨 두겠다고 말했으나 떠날 때는 정작 데려가 버렸다. (그러자) 중용은 손님의 나귀를 빌려 타고 重服(부모 상을 당했을 때 입는 喪服)을 입은 채로 직접 뒤쫓아 가 함께 나귀를 타고 돌아와서는 말하길: “사람의 씨를 잃어 버릴 수는 없지!”라 했다. 그녀는 바로 요집의 어머니이다. (阮仲容先幸姑家鮮卑婢, 及居母喪, 姑當遠移, 初云當留婢: 既發, 定將去. 仲容借客驢箠

37) 『晉書』 卷6 「中宗元帝紀」: 「玄石圖有牛繼馬後, 故宣帝深忌牛氏, 遂為二榘, 共一口, 以貯酒焉, 帝先飲佳者, 而以毒酒鳩其將牛金. 而恭王妃夏侯氏竟通小吏牛氏而生元帝」(154쪽.)
『魏書』 卷96 「列傳」 第84 「僭晉司馬叡竇李雄」: 「僭晉司馬叡, 字景文, 晉將牛金子也. 初晉宣帝生大將軍, 琅邪武王, 仙生冗從僕射, 琅邪恭王, 觀妃譙國夏侯氏, 字銅環, 與金姦通, 遂生叡, 因冒姓司馬, 仍為觀子. 由是自言河內溫人。」(2104쪽.)

38) 『晉書』 卷32 「后妃下」 「豫章君荀氏, 元帝宮人也. 初有寵, 生明帝及琅邪王, 由是為虞后所忌. 自以位卑, 每懷怨望, 為帝所譴, 漸見疏薄. 及明帝即位, 封建安 ...」(979쪽.)

重服自追之, 累騎而返: 曰: 「人種不可失!」即遙集之母也.)

완함은 슬하에 두 아들만을 두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선비족 하녀가 낳은 遙集 阮孚이다.³⁹⁾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완적의 조카이기도 한 阮咸의 가문은 명문세가였다. 모친상 중에 상복 차림의 완함이 내연녀인 선비족 하녀를 쫓아간 거리낌 없는 행위와 선비족 혼혈아 완부의 존재는 견고했던 가부장적 윤리 강령과 종족주의가 개방과 자유를 존중하는 상호주의의 길로 선회하는 시대의식을 표명하는 대표적 예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형태의 통혼과 잦은 접촉으로 종족 간 습속과 가치관 등 문화의 거리는 그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특히 끈끈한 생명력과 강인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북방 여성들의 호방한 개성은 규방에 제한된 중원 여성들의 삶을 자극하였다. 전통적으로 정착생활을 하는 중원 여성들의 삶이 규방에 제한되어 있던 것과 달리 유목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생산, 양육, 교육 등 가정과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북조 여성들의 활달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질에 노출된 중원 사회에는 점차 새로운 남녀관과 젠더 의식이 조성되었다. 『세설신어』에 수록된 여러 일화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가홀9」를 보자.

溫公(溫嶠)은 喪妻했다. 堂姑母 劉氏는 전란을 만나 가족이 흩어져 버리고 오직 딸 하나만 있었는데, (그 딸은) 아름답고 총명했다. 당고모가 온공에게 혼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온공은 은밀히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대답하길: “훌륭한 사윗감은 구하기 어렵지만 저와 같은 정도라면 어떻습니까?”라고 하자, 당고모가 말하길: “전란으로 가족을 잃은 나머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처지에, 나의 여생을 위로받을 수만 있으면 됐지 어찌 감히 너와 같은 이를 바라겠느냐?”라고 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온공이 당고모에게 알리길: “이미 혼처를 찾았습니다. 문벌도 대강 괜찮은 편이고 사윗감의 명성과 관직도 모두 저에 못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玉鏡臺 하나를 (예물로) 내놓았더니, 당고모가 크게 기뻐했다. 이윽고 결혼하게 되어 拜禮를 나눈 뒤에, 신부가 손으로 비단 부채를 제치

39) 『晉書』 卷49 「阮籍傳」: 「孚字遙集。其母, 卽胡婢也。」(1360쪽.)

더니 크게 웃으며 말하길: “나는 본래 늙다리 당신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과연 예상했던 대로군요!”라고 했다. 옥경대는 온공이 劉越石(劉琨)의 長史가 되어 劉聰을 복벌했을 때 얻은 것이었다. (溫公喪婦, 從姑劉氏, 家值亂離, 唯一一女, 甚有姿慧, 姑以屬公覓婚. 公密有自婚意, 答云: 「佳婚難得, 但如嶠比云何?」 姑云: 「喪破之餘, 乞得粗相存活, 便足慰吾餘年; 何敢希汝比?」 卻數日, 公報姑云: 「已得婚處, 門地粗可, 壻身不減嶠。」 因下玉鏡臺一枚. 姑大喜. 既婚, 交禮, 女以手披紗扇, 大笑曰: 「我固疑是老奴. 果如所卜。」 玉鏡臺, 是公爲劉越石長史, 北征劉聰所得.)

상처한 온공이 재혼 상대로 염두에 둔 이는 당고모의 딸이자 자신의 사촌이다. 이름답고 총명한 신부를 맞은 혼례 당일, 배례를 나눈 뒤 부채를 짓히고 신랑의 얼굴을 확인한 신부의 행동이 과감하다. 뿐만 아니라 크게 웃으며 신랑을 ‘늙다리’라고 부르는 신부의 거리낌 없는 언행은 분명 ‘삼종지도나 ‘예리는 것은 부부가 경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안팎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⁴⁰⁾는 『예기』의 규범에 위배된다. 전통적인 유가의 윤리강령인 『예기』는 열 가지 ‘人義⁴¹⁾를 규정해 인간 존재의 가치를 공동체의 대의를 위한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들이 보여준 대담하고 구속받지 않는 태도와 언사, 행동에는 분명 전통 질서와 가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진취와 개방, 도전과 확장 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惑溺」 고사에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여성들은 자신들의 질투와 분노, 그리고 욕망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 되게 표현하고 있다. 비록 ‘혹닉’이라는 의미의 고사에 수록되어 있으나, 분명 개성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젠더 의식을 보이고 있다. 「혹닉⁶⁾ 역시 변화된 남녀관을 보여주고 있다.

王安豐(王戎)의 부인은 늘상 안풍을 자네라 불렀다. 안풍이 말하길: “부인이 남편을 경이라 부름은 예의에 불경하니, 후로는 다시 그리 부르지 마오”라 했다. 부인이 이르길: “자네와 친하고 자네를 사랑하여 자네를 경이

40) 『禮記』 「內則」: 「禮, 始於謹夫婦, 為宮室, 辨外內.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 闔寺守之. 男不入, 女不出. 男女不同櫛櫛, 不敢懸於夫之櫛櫛, 不敢藏於夫之篋笥, 不敢共湑浴。」

41) 『禮記·禮運』: 「父慈, 子孝, 兄良, 弟弟, 夫義, 婦聽, 長惠, 幼順, 君仁, 臣忠。」

라 부르는 것이오. 내가 자네를 자네라 부르지 않으면 누가 자네를 자네라 부르겠소?” 마침내 항상 그리하라 수락하였다. (王安豐婦, 常卿安豐, 安豐曰:「婦人卿婿, 於禮爲不敬, 後勿復爾。」婦曰:「親卿愛卿, 是以卿卿, 我不卿卿, 誰當卿卿?」遂恒聽)

‘卿’은 본래 대신을 가리키는 爵位나 官職의 호칭이었다. 『晉書』 「百官志」는 천자나 제후가 대신들을 正卿이라 불렀다 전하며⁴²⁾, 『韻會』에 따르면 秦漢 이래 군주가 신하를 부를 때 경이라 불렀다고 한다.⁴³⁾ 즉 천자나 제후 등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진 이래로 ‘爾’나 ‘汝’ 등 동년배 혹은 손아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거나 때로는 남편이 부인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다.⁴⁴⁾ 산도의 처가 산도를 ‘君’이라 칭했듯⁴⁵⁾ 아내는 남편에게 ‘官人’·‘君’ 등 존중을 표하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왕용 부인이 남편을 부른 ‘자네(卿)’라는 호칭은 동년배처럼 남편을 격의 없이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윤리관과 예의로 부부와 남녀 간을 규정하던 가부장적 위계에 어긋나는 언행임에도 흔쾌히 수용하는 왕용의 태도 역시 진보적 젠더 의식이 고양된 시대 분위기를 전달한다. 왕용이 활동하던 永明 연간은 南齊와 北魏가 화친을 위한 사신 파견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당시 竟陵王蕭子良의 西邸에서 활약하던 왕용은 孔稚珪·沈約과 함께 北魏와 南朝가 각 공간을 영위하면서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진취적 인물로 위진의 개방적 시대관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례들을 통해 여성 스스로 공동체적 위계질서의 틀을 탈피하여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성과 자유를 통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시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진취와 활동성, 도전과 적응에 가치를 둔 북방인들의 삶은 순종과 인내, 겸손과 양보만을 미덕으로 삼던 중원 한족들 삶의 가치관에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이는 지리적 확장이 문화와 가치관의 확장까지 견인했던 위진남북조 시대의 귀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2) 『晉書』 「百官志」: 「古者, 天子諸侯皆名執政大臣曰正卿, 自周後始有三公九卿之號。」

43) 『韻會』: 「漢以來, 君呼臣以卿。『正韻』君呼臣爲卿, 蓋期之以卿也。」

44) 蔣凡, 李笑野, 白振奎評注: 『全評新註『世說新語』』(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3. 1刷, 352쪽.)

45) 『世說新語·賢媛11』

5. 나가는 말

주변인으로서의 이민족들이 국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중원의 질서를 위협하며 정치적으로 약진하던 위진 남북조 시기는 한족과 이민족 간의 지리·종족·문화·정치·경제 등 전반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던 시기였다. 세계의 중심으로서 화하리는 우월감과 夷狄를 멸시하던 분별의식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중원에 유입된 호족 문화리는 이질적 문명에의 호기심과 동경이 한족들의 실용적 유용성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각 종족은 점차 서로의 문화적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유가적 禮制·禮治를 실용과 개방으로 대체해 가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정립해 나갔다.

호상 및 유증 등 위진 시대 이민족의 물자는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를 과시하는 일종의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었으며, 그 실용성과 간소함은 전통과 규율의 잣대를 느슨하게 하는 정신과 신체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했다. 언어 장벽의 와해와 배타적 세계관의 타파는 인식 지평의 확대라는 문화적 성취를 이룩하게 하였다. 생존과 적응에 뛰어난 북방 여성의 호쾌한 기상과 능동적 생활력은 규방에 제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원 여성들에게 생기와 활기를 제공하였다.

위진남북조 시대 이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한족 고유의 공동체 사회의 소산인 집단사고, 유대감, 전통문화의 유산은 실용주의, 개방성, 평등의식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견고한 민족주의, 고착된 화하 관념, 편협한 배타주의를 벗어나 상호주의적 관념의 생성, 세계관의 확장, 국제의식의 형성, 젠더 질서의 재편은 위진남북조가 거둔 사회문화적 성과라고 하겠다.

『세설신어』에 수록된 이민족 관련 사례들은 이민족과 삶과 가치관을 공유했던 위진 시대가 새로운 상호주의적 의미망을 설계함으로써 색다른 문명, 창조적 문화, 진보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던 도약의 시대였음을 설명한다. 중원의 지리적·종족적·문화적·윤리적 강령이 동아시아 문화의 대통합이라는 명제아래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견고한 유가의 공동체적 윤리 의식과 이분법적 분리주의가 통합과 융합, 확장과 다양성으로 대체되는 진보적 소산을 견인했

다. 이민족 문화와의 접촉과 융합을 통해 이루어낸 이와 같은 위진 시대의 정체성은 '개체의식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의 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진 남북조가 후세에 제공하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劉義慶, 『世說新語』(上下), 思賢講舍刻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禮記』, 13經注疏本, 臺北, 藝文印書館.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83.
 [南朝宋] 范曄, 『後漢書』, 臺北, 鼎文書局, 1987年 1月 5版.
 [唐] 房玄齡等撰,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98.
 『晉書』(『二十五史』 5-6), 서울, 景仁文化社, 1977.
 『魏書』(『二十五史』 9), 서울, 景仁文化社, 1977.
 『老子道德經』(『新編諸子集成』本), 臺北, 世界書局, 1972.
 『莊子集解』(『新編諸子集成』本), 臺北, 世界書局, 1972.
 [梁] 蕭統 編, [唐] 李善 注, 『文選』(臺北, 五南出版社, 1991), 上冊, 제8권.
 葛 洪, 『抱朴子外篇』(『新編諸子集成』本), 臺北, 世界書局, 1972.
 許輝 主編, 『六朝經濟史』, 江蘇古籍出版社, 1993.
- 김용문, 「북위(北魏)시대의 호복(胡服)연구」, 『한복문화』 제12권 제3호, 2009. 12.
 김진선, 「中國正史朝鮮傳의 韓國古代服飾」, 단국대 전통의상학 석사논문, 2005.
 朴春順·林挾住, 「匈奴의 復飾文化 小考」, 『中國史研究』 第46輯, 2003.8.
 이상오, 「중국 북방 유목민족 음식문화의 주요 특징」, 『人文學志』 第41輯, 2010.
 張英洙, 「敦煌石窟 초기 壁畫에 묘사된 袴褶의 외부적인 요소」, 『民族과 文化』 제12집, 2003.
 최진열, 「北魏前期 胡語 사용 현상과 그 배경」,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6집, 2009.11.
 홍승현, 「魏晉南北朝時期 中國의 世界 개념 변화와 이민족 정책」, 『동북아역사논총』(10), 2006.4.
 程奇立, 「魏晉南北朝時期的山東移民與文化變遷」, 『아시아문화』(23), 2006.12.
 竺小恩, 「從北魏服飾改革看胡漢文化關係」, 河西學院學報, 22(4), 2006.

〈Abstract〉

A Study on Periodical Meaning of Geography, Race, and Gender
- Immigrants' Ethnic Culture of Wei-Jin(魏晉) Era Based on an Analysis into
『Shishuo-ShinYu(世說新語)』

Lee, Young-suk

This is a study to trace the meaning of Geography, Race, and Gender in the era of "Wei-Jin" based on an analysis into 『Shishuo-ShinYu(世說新語)』 which is the optimal text to reflect unique traces of civilizations, cultural exchanges and convergence between the races of Wei-Jin(魏晉) era.

The rationale behind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more than 700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nobles, monks, scholars, women, maidens, and ethnic groups of about 200 years from the end of East Han Dynasty to the end of East Jin in 『Shishuo-ShinYu(世說新語)』. Thus, through this book I can find out the valuable resource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gender language, customs and lifestyle between Han and ethnic in Wei-Jin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his study considers the various materials of the ethnic immigrants variously projected in the 『Shishuo-ShinYu(世說新語)』 into three parts: "distribution of exotic goods and globalization of market, breakdown of language barriers and expansion of world view, change of male and female appearance and reorganization of gender order".

The ethnic material of the immigrants in this era was valuable as a symbol of political power, social status and economic wealth, and its practicality and simplicity also meant spiritual and physical freedom to loosen the standard of tradition and discipline.

The collapse of language barriers and the breakthrough of the exclusive world view have led to the cultural achievement of the expansion of cognitive horizons.

The exciting weather and active vitality of the Northern ethnic female, excellent in survival and adaptation, gave life and vitality to women of Han race who were restricted to societies and socially isolated in Central districts of China.

Through the contacts with ethnic immigrants in the era of Wei-Jin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he heritage of vertical collectivism, bondage, and traditional culture, which are products of the Han community, gave place to pragmatism, openness and equality consciousness.

Therefore, the coexistence of the Sixteen Kingdoms and the Civilization of the Han race in the era of Wei-Jin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was the root cause of unstable state of confrontation, conflict, tensions in politics, however, ultimately it turned into the fact that it fueled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expansion of values and consciousness.

Key Words: Shishuo-ShinYu(世說新語), Wei-Jin, Geography, Race, Gender, Interethnic relation, Ethnic immigrants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4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